신라왕릉 무인상, '서역인' 아닌 '금강역사'가 모델

임영애 교수, 〈조선왕릉 석물조각사〉서 주장

신라의 서역과 직접 교류를 추정하며 드는 역사적 증거 중 하나는 경주 원성왕릉(일명 괘릉)의 무인상이다. 부리부리한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 풍성한 수염의 무인상을 두고 일반적으로 "직접 교류를 했던 서역인을 이미지화 했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신라왕릉의 석물 조각들이 불교미술의 영향을 받았고, 특히 원성왕릉의 무인상은 신장상(神將像)에서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임영애 경주대 교수는 최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맹식)가 발간한 연구서 〈조선왕릉 석물조각사(Ⅰ)〉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신라왕릉의 석인상' 연구논문에서 신라왕릉 4기에 세워진 석인상들을 조명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석인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성덕왕릉이며, 이것이 완성형태에 이른 것은 원성왕릉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원성왕릉에 대해서는 "석인상의 조각이 매우 뛰어나며, 왕릉 석물이 완전체를 이루고 있다. 원성왕릉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국적 얼굴의 무인상은 신라왕릉 조각의 백미(白眉)"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임 교수는 권영필, 민병훈 등이 제기한 신라와 서역의 직접 교류설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당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선적으로 서역인이 9세기 중후반에 존재해야 했지만, 당시 신라는 극심한 혼란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집단이었던 이들이 혼란기 신라를 찾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주 괘릉서 무인상 첫 등장해
조선왕릉 무인상에도 영향 미쳐

'서역인 이미지'는 역사 증거 無
당시 '서역인=상인', 수호자 못돼
신라왕릉 석물, 불교의 영향 지대
원성왕도 불교 기반에 왕위 올라

또한, 장사치에 불과했던 서역인들이 왕릉과 같이 신성한 공간을 지키는 수호자로 나설 수 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임 교수는 "8세기 전반 당의 수도 장안에 2~3만 명의 서역인이 거주했을 때조차, 심지어 그들이 군사적 역할을 담당했을 때에도 그들의 모습을 앞세워 황릉 수호를 맡긴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상기하면 통일신라에서만 서역인에게 왕릉 수호의 역할을 맡겼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주 원성왕릉의 무인상. 그동안에는 서역인을 모델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불교의 금강역사가 모델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무인상의 복식 역시 서역인과는 맞지 않다는 게 임 교수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신라인들이 서역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서역인을 왕릉 앞에 세우기를 원했다면 오히려 서역인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호모(胡帽)를 쓰고 깃이 벌어진 호복(胡服)을 입었을 것"이라며 "원성왕릉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역적 특징은 단지 얼굴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원성왕릉의 무인상은 서역인이 아닌 불교 호법신장인 '금강역사'을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신라왕릉의 석물에 불교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라왕릉 조각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며 "신라는 당나라와는 달리 능묘조각의 작가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 불교조각가를 기용해 석인상을 비롯한 석물 제작에 참여토록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성왕의 경우 불교를 기반으로 왕이 됐고, 유언에 따라 화장을 하는 등 불교와의 관계를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면서 "만약 원성왕릉의 무인상의 얼굴 모습을 두고 서역인을 직접 모델로 했다고 이야기하려면 감은사 사리기의 사천왕상이나 석굴암 금강역사상을 두고도 서역인이 도래한 결과라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선왕릉 석물조각사〉에는 고려왕릉 조각의 대외교류 양상과 조선으로의 이행을 비롯해 조선왕릉 석인조각과 능제(陵制)와의 관계, 도상(圖像) 변화 등을 알 수 있는 연구 논문들이 수록됐다.

분단으로 인해 확인하기 힘든 북한의 고려왕릉 석인상의 실제 모습을 지면을 통해 상세히 소개했고, 조선왕릉 석인상 · 비석에 숨겨진 변화상을 문헌과 시각자료로 고찰하여 그동안 조선왕실 조각의 성격이 절제미로 규정돼 온 것과 달리 개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조선왕릉 석물조각사(Ⅱ)〉는 내년에 발간되며, 석수와 병풍석 등 기타 석물을 모두 다룰 예정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서는 연구소가 10년 넘게 축적해 온 자료를 집성한 것"이라며 "신라~고려, 조선~대한제국에 이르는 방대한 시간적 편년에 따른 조각양식 등 미술사적 관점에서 왕릉석물의 변천을 통시대적으로 파악한 최초의 개론서"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대승의 실천사상은 어떻게 수용됐나

학술서 〈대승불교의 실천〉 발간
스에키 · 이자랑 교수 등 공동저술
계율 · 선정 등서 실천사상 분석해



대승불교의 가장 큰 목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다. 그만큼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것을 중요시 한다. 대승불교에서 나타난 이 같은 실천사상이 어떻게 수용됐는지를 살피는 학술연구서가 나왔다.

스에키 후미히코 국제일본문화연구센터 교수 등이 참여해 공동 저술한 〈대승불교의 실천〉은 실천사상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그 사상이 실제 대승불교 안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신앙이나 수행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가를 짚어낸다.

〈대승불교의 실천〉에는 스에키 후미히코 교수를 비롯해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하카마야 노리아키 前 고마자와대학 불교학부 교수, 야마베 노부요시 동경 농업대학 농학부 교수, 시마다 아키라 뉴욕 주립대학 준교수, 카츠모토 카렌 동방학원 강사, 후나야마 도루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츠치야 다이스케 니카타대학 준교수가 참여했다. 김재권 박사가 번역을 맡았다.

이중 스에키 교수가 연구서의 총론 격으로 저술한 1장은 대승불교 개념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검토하고 실천 개념의 다양성을 논하고 있어 주목할만 하다.

스에키 교수는 서구학자 베르나르 포르, 로버트 샤프 등의 불교에 대한 비판 연구를 소개하고 사회참여불교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불교연구는 교조적 교리를 고정화하는 입장이 반성되고, 근현대의 사회적 실천까지 중요한 연구대상이 됐다. 연구장의 연구와 실천의 관계도 새롭게 되묻게 됐다"고 밝혔다.

스에키 교수는 대승불교의 핵심을 '타자론'에 뒀다. 그는 〈법화경〉의 후반부는 붓다의 열반 후에 '어떤 실천이 가능한가'를 묻고 있고 있음을 전제하고, "대승불교는 붓다 열반 후에 형성된 것이고, 죽은 자로서의 붓다와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는지를 큰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문제는 대승불교의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자의 문제는 그대로 사회참여불교의 문제에 연결되고, 죽은 자의 문제는 산 자를 초월한 타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며 "불전해석은 그대로 현대의 실천적 문제에 결부돼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자랑 교수는 '계율과 교단'을 통해 부파분열과 대승의 성립과정에서 계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조명한다. 하카마야 노리아키 前 교수는 '신앙과 의식'에서 대승흥기시대의 실천적 모습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마다 아키라 교수는 '보살과 보살신앙'을 통해 사리를 모시는 장으로 불탑이 신앙 대상이 되고, 붓다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불상신앙이 발전하고 있음을 고찰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금강대 발전위해 머리를 맞대다

23일 미래전략 포럼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종단과 학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금강대(총장 한광수)는 1월 23일 서울 관문사 소강의실에서 '2017 금강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서남수 前 위덕대 총장이 '한국 대학의 위기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했다. 이어 민경찬 연세대 명예교수가 '글로벌 명문대학의 길, 무엇을 고민해야 하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미래 고등교육 동향과 대학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오늘 포럼은 금강대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급변하는 교육과 사회 환경에 최상의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강대의 특성화와 미래형 비전, 그리고 대학 구성원과 종단의 역할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여 학교의 내실과 외적 성장 모델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광수 금강대 총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전략 포럼을 준비했다"며 "금강대를 명문사학으로 만들어 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사硏, '한국불교사연구' 10호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제10호를 발간했다.

〈한국불교사연구〉 10호에는 '불교 전래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불교가 조선왕실 연향에 미친 영향(김상보) △불교가 한국의 주거문화에 미친 영향(최건업) △한국불교복식의 전개(강선정) △불교가 한국인의 수행문화에 미친 영향(심준보) 논문이 수록됐다.

이와 함께 '조선후기에서 대한시대로의 불교사적 전환'을 주제로 △선조의 광해군 양위 과정(이근호) △조선후기 불교계의 지성인 형성기반(고영섭) △한길로 법사의 한길사상(이성운) 논문이 실렸다. 신성민 기자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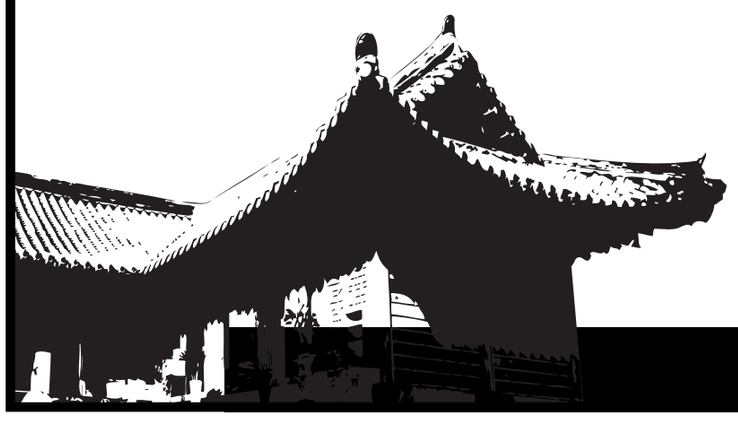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